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15.(월) 11:00,  
(지면) 2024. 7. 16.(화) 조간

배포 2024. 7. 15.(월) 06:00

## 장마 이후 급수온 상승에 주의하세요

- 급격한 수온 상승에 따른 양식장 피해 주의
- 7월 중순 고수온 주의보 발표 전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이번 주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마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마 이후 급격한 수온 상승을 유의할 것을 양식어업인들에게 알렸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7월 11일 서·남해 및 제주 연안의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주, 장마전선의 북쪽 이동에 따라 남해안이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본격적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연안과 내만에서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양식생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중 호우의 영향을 받은 해역에서 급격한 수온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양식생물에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고수온 발생 전, 어업인들은 영양제가 혼합된 사료를 공급하여 양식생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액화산소 공급기 같은 대응장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대응장비를 양식장에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180개소에서 190개소로 확대하고, 누리집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업현장에 수온 정보를 제공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중순에 고수온 주의보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어업인 분들께서는 사육밀도 조절, 산소 공급량 증가 등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계속 해서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392)
			사무관	유병동 (044-200-5616)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양준용 (051-720-2750)
			연구사	황재동 (051-720-2751)
			연구사	이시우 (051-720-275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